

펀드매니저가 들려주는

신영주니어 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2019. 01. 27. ~ 2019. 04. 26.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주니어경제박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투자한 돈을 맡아 운용하고 있는 펀드애니저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펀드가 지난 3개월 동안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이익은 얼마나 냈는지 같이 살펴 볼까요.

펀드가 보유한 가치주와 섬유 의복, 운수장비, 증권 등 업종이 양호한 성적을 보였으나 펀드가 시장 대비 높은 비중으로 보유한 전기전자, 건설, 음식료 등의 업종이 부진하여 시장보다 다소 낮은 성과를 기록하였어요. 투자에 있어 큰 이슈 중 하나로 북미정상회담이 2월 말에 있었는데, 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한국 주식시장을 두고 다시 투자자들의 우려가 짙어지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글로벌적으로는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좋게 나타났고 중국 또한 정부 주도의 소비진작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글로벌 주식 시장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보다 미중 무역전쟁 같은 글로벌 이슈들이 국내 대표적 기업들의 실적에 더 영향을 많이 주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글로벌 문제 등 시장에 대해 다양한 우려가 많지만 그럴수록 시장에서 저평가 되어 있고 충분히 실적이 뒷받침 될 수 있는 기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주니어경제박사 펀드는 장기적으로도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펀드 성적을 살펴 볼까요~!

<주니어경제박사 수익률 및 펀드 규모> 기준일 : 2019. 04. 26.

(비교지수 : KOSPI 90.0% + CD91 10.0%)

+ 0.01 %

최근 3개월 수익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2019. 01. 27. ~ 2019. 04. 26.) +0.01%입니다.

비교지수 수익률이 +0.12%인 것에 비하면 0.11%pt만큼 낮습니다.

최근 5년 수익률

+ 28.70 %

비교지수 : +10.72%

비교지수대비 : +17.98%pt

최근 3년 수익률

+ 13.52 %

비교지수 : +7.79%

비교지수대비 : +5.73%pt

최근 1년 수익률

- 11.08 %

비교지수 : -10.61%

비교지수대비 : -0.47%pt

26,099 백만원

순자산 총액

-0.76%pt ↓

증감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 투자 바구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담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순자산 총액이에요.

순자산 총액이 3개월 전 보다 0.76%pt 줄었어요.

* 증감률이란? 우리 펀드가 3개월 전보다 얼마나 커졌는지 혹은 줄었는지를 말해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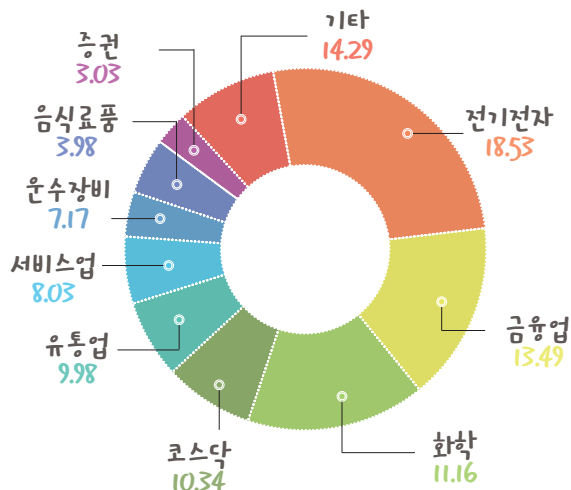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우리 펀드는 어디에 투자되고 있을까요?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에는 주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펀드매니저가 여러 회사를 직접 방문하면서 평가하여 앞으로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회사를 신중하게 골라내어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 안에 담았어요.

우리 투자 바구니 안에는 어떤 주식이 있을까요?

<업종별 투자비중>



<주요 투자 종목>

(기준일 : 2019. 04. 26. 단위 : %)

1위	삼성전자	14.01	6위	SK케미칼	1.79
2위	LS	3.37	7위	LG화학	1.67
3위	CJENM	2.52	8위	SK텔레콤	1.62
4위	KCC	2.06	9위	한국가스공사	1.59
5위	현대차	2.02	10위	금호석유	1.57

2019년 4월 26일 기준으로 주니어경제박사 펀드는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어요. 종목은 지난번과 같이 삼성전자, LS와 같은 종목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들고 있습니다.

신영주니어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신영자산운용**
www.syfund.co.kr

<주니어경제박사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알아보까요?>

 **HYUNDAI**

현대차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완성차 제조업체로 현대 자동차그룹을 대표하는 기업이에요. 아반떼, 소나타, 싼타페, 제네시스, 코나 등의 브랜드의 차를 생산하고 있고 국내를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 이랍니다.

 **LG화학**

LG화학

플라스틱, 사시, 파이프 등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소재를 제공하는 사업, 첨단소재 사업 등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 배터리를 생산하기도 한답니다.

 **SK telecom**

SK텔레콤

SK텔레콤은 흔히 알고 있는 휴대 전화를 이용한 통신서비스,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 IPTV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어요. 무선통신사업을 하는 통신사 중에 점유율 1위 사업자랍니다.

투자자산매매내역을 알아보까요?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기준일 : 2019. 01. 26.

(단위 : 백만원, %)

매수	
수량	금액
64,494	2,867

매도	
수량	금액
89,171	2,648

매매회전율	
해당기간	연환산
10.30	41.77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

2018.07.27 ~ 2018.10.26
9.62

2018.10.27 ~ 2019.01.26
11.19

2019.01.27 ~ 2019.04.26
10.30

주니어경제박사의 경제열전 - 미중 무역전쟁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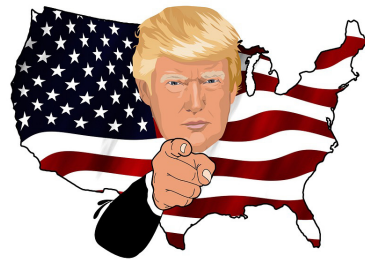
주니어 경제박사 여러분, G2라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무역전쟁이 최근 종결되나 했더니 협상 결렬로 인해 다시 시작되어 전세계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무역전쟁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나라가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는지 간략한 이유에 대해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무역전쟁은 쉽게 말해서 관세전쟁이에요. 관세는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A국이 자동차를 B국에 수출하려고 해요. 그런데, B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보다 가격을 훨씬 저렴하게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B국에서 허락을 해준다면 B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비싼 가격 때문에 잘 팔리지 않을거예요. 그래서 B국이 자국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A국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해 가격대를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B국에서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정책이 강화되면 B국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거예요. 또한, B국이 자동차 수요가 굉장히 큰 시장이라면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B국 내에 생산 공장을 짓고자 하는 유인도 커질거예요. 그렇게 공장이 B국 내에 들어오게 되면 B국은 고용 창출 등의 효과 또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A국 입장에서는 A국 자동차가 B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니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A국도 복수심을 가지고 B국에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높게 부과하게 되고 B국은 또 다시 이러한 A국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처럼 연쇄반응적으로 관세 인상이 계속되는 것을 관세전쟁이라 한답니다.

과거를 돌아해보면, 이러한 관세전쟁은 전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를 남겼었어요. 1929년 10월, 미국은 증권 시장이 폭락하는 경제 위기에 직면하면서 1930년도에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2만여 개의 수입품에 평균 59%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는데요. 이로 인해 각국은 반발했고 관세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국은 법 제정으로 인해 덕을 보긴 커녕 실업률은 폭등하고 수입과 수출 또한 극도로 위축되어 경제가 더욱 곤경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무역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가 이러한 관세전쟁을 하려 하는 것 일까요? 중국 상대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첨단 기술을 훔치고 있으며 자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작년 7월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의지로 처음 시작한 이래 최근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까지 와있었는데, 미국의 요구사항을 중국이 대다수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합의 내용들을 법으로 제정하라는 미국의 요구만큼은 끝끝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서 트럼프가 다시 무역 전쟁에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합의 내용들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말로서만 끝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국내법을 바꾸면서까지 미국에 굴복하고 싶지 않아하는 입장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분쟁이 격화될 수록 미국과 중국의 주요 수출 기업들은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일 수록 기업 본연의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기업들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주니어 경제박사 여러분, 미국이 중국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공부해보고 앞으로 두 정상들의 힘겨루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우리 펀드의 운용 (부모님께)

신영주니어경제박사증권(주식)의 3개월 수익률은 +0.01%로 비교지수 +0.12% 대비 0.11%pt 하회하였습니다. (비교지수 : KOSPI 90.0% + CD91 10.0%)

<운용경과>

동 펀드의 수익률이 비교 지수 대비 소폭 하회한 이유는 펀드가 보유한 가치주와 섬유·의복, 운수장비, 증권 등 업종이 양호한 성과를 보였으나 펀드가 시장 대비 높은 비중으로 보유한 전기전자, 건설, 음식료 등의 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장은 작년 연말의 급락 이후 새해 들어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완화 표명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관련 협상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기피 심리가 해소되며 반등하였으나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진전 없이 끝나고 기업의 실적 우려로 소폭 하락하는 등 반등한 지수대에서 등락을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실적 증가의 가시성이 높은 섬유·의복 업종의 지수반등과 장기간 소외되어 있었던 유통업종 등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 크게 하락했던 화학, 전기전자, 증권 등 업종의 반등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작년 연말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던 통신, 전기가스, 음식료 등 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펀드는 KOSPI의 상승에도 주가 소외로 청산가치 대비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는 대형 우량주와 향후 2~3년 사이에 기업가치 상승이 진행될 업체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성장가치가 있는 중소형주의 편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미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미-중 무역분쟁 격화가 완화된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로 투자심리가 회복되며 한국 주식시장의 절대적, 상대적 저평가 상태는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한국 증시의 경우 북한 관련 기대감이 사라지고 한국 기업의 실적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어 이익 대비 고평가 된 상태로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제한된 범위 내 높은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MSCI 신흥국 지수 내 비중 축소 영향과 민간기업의 투자 부진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는 지속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 주식시장은 지수의 추세적인 상승 보다는 기업 본질의 경쟁력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며 차별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낮은 지수 레벨에서는 업종 내 대표 우량주,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 주주 환원 등으로 인한 주주가치가 상승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으로 업종별 순환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미국, 중국을 비롯하여 각국의 자국 중심주의 속에 글로벌 경기에 따른 수혜업종의 연관성도 과거 대비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기업 본연의 자체적인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기의 둔화, 불확실성의 확대, 성장기회의 희소성에서도 혁신, 지배력 확대 등 경쟁력을 높여가는 기업을 찾는 과정을 지속하면서 저평가된 우량주의 편입에 집중하여 펀드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